

12-18 (통권 제 489호)

2012. 5. 25.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부패와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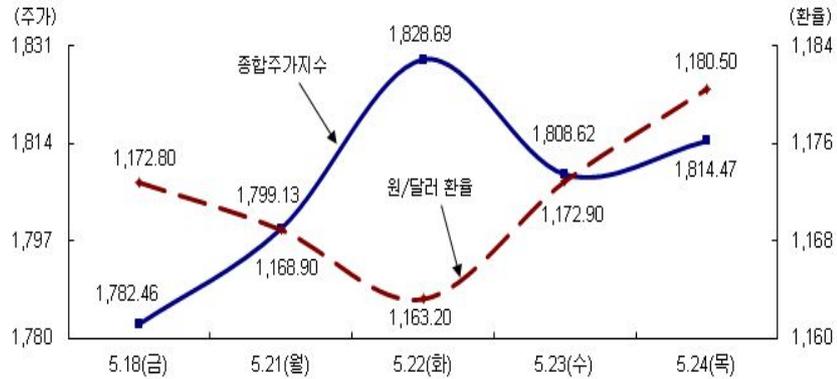
- 부패만 해소 되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18~5.24)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부패와 경제성장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0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대표 집필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이 부 형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부패와 경제성장

- 부패만 해소 되도 잠재 성장률 수준 회복

■ 부패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특성이 있다. 즉,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의 투자 활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수준은 최근 들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이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서,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상승하면서 부패수준이 개선되었으나, 2011년에는 5.4로 다시 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 경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 국민과 전문가가 느끼는 국내 부패인식 점수가 2011년에 각각 3.06, 3.8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995~2010년 기간 중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와의 관계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장회계모형 확장을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을 통해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약 0.65%p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즉,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 시사점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부패의 폐해에 대한 대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법 제도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들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1. 부패의 개념과 경제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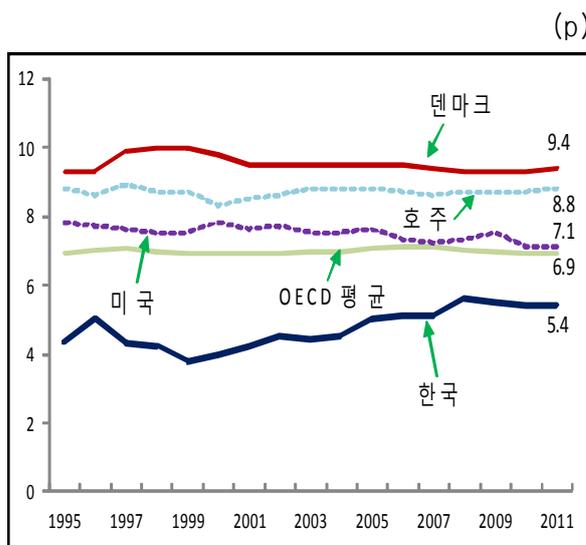
- (부패의 개념)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으로 확산될수록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
 - Botchwey(2000)는 부패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발생하나, 공공영역으로 확산되면 공공영역의 사유화 증가로 공사구별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공적 업무권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이 양산된다고 주장함
 - Meier & Holbrook(1992), Huther & Shah(2000)에 따르면 부패는 어떤 행위의 실현가능한 뇌물, 이권과 같은 순편익(Net Benefits)이 처벌 등 순비용(Net Costs)을 상회할 때 발생
- (부패의 경제적 의미) 부패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¹⁾
 - Mauro(1995)와 George-Davoodi(2000) 등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패를 줄임으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Knack & Keefer(1995), Li(2000), Rock & Bonnett(2004) 등은 부패가 투자 하락을 유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직접적으로 부패와 성장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또한, Tanzi & Davoodi(1997)는 부패한 국가일수록 공공투자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는 실증적 검토를 통해, 정책결정의 왜곡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

1)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Behavior)란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즉 로비·약탈·방어 등 경제력 낭비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불법적인 지대추구행위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침.

2.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

- (부패 수준 개선 미약) 한국의 부패지수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계층별 부패인식 점수의 개선세도 매우 미약한 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최근 하락세이며, OECD 평균 수준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10점 만점으로 0점이 가장 부패한 수준임
 - 한국의 부패지수는 1999년 3.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2008년 5.6점까지 상승하다 2011년에는 5.4점으로 하락
 - OECD 국가들의 2011년 평균 부패지수는 6.9점으로 한국보다 1.5점 높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경험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개선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
 - 기업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들의 부패인식 점수는 2011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된 한편,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계층들의 부패인식 점수가 중간 값인 5점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 특히,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인식 점수는 2011년 3.06으로 전년에 비해 0.6점이나 하락하면서, 2006년 3.04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짐

< 국가별 부패지수 추이 >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내 계층별 부패인식 점수 >

(p)

| 구분 | '06 | '07 | '08 | '09 | '10 | '11 |
|---------------|------|------|------|------|------|------|
| 국민이 느끼는 부패정도 | 3.04 | 3.48 | 3.25 | 3.42 | 3.68 | 3.06 |
| 공무원이 느끼는 부패정도 | 5.39 | 5.95 | 5.56 | - | 5.97 | 5.51 |
| 기업인이 느끼는 부패정도 | 4.19 | 4.71 | 4.49 | 4.42 | 4.23 | 4.66 |
| 전문가가 느끼는 부패정도 | - | - | 4.13 | 4.20 | 3.75 | 3.84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11. 12), '11년 부패인식·경험 조사결과.

3.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 (부패와 경제성장은 음의 상관관계)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성장은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실증분석 모델에 따라 결과치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 매년 0.6~1.4%p 높게 성장하며,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타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서인석 외(2009)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부패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선행연구 결과 >

| 구분 | 분석기간 | 변수 구성 | | 주요 결과 |
|-----------------|---------------|-------------------|---|---|
| | | 종속변수 | 설명변수 | |
| 황지영·강동관 (2008) | '80~'00 평균 | - 경제 성장률 | - 부패지수 - 정부지출 - 무역량/GDP - 총자본형성/GDP - 중·고등학교 학력자/25세 이상 총인구 - 지니계수 - 인플레이션율 | - 부패수준 1단위 개선 시 매년 약 0.6~1.15%p 정도 추가 성장 |
| 차문중 (2005,2007) | '91~'03 평균 | - 경제 성장률 | - 부패지수 - 국내투자, 해외직접투자 총투자(이상 對 GDP比) - 총교역액 증가율 - 재학연도 성장률 - 동유럽 또는 구소련국가 더미 | - 부패수준 1단위 개선 시 매년 약 0.7%p 정도 추가 성장 - 한국은 부패로 매년 약 0.7~1.4%p 성장 손실 |
| Mauro (1995) | '60~'85 평균 | - 명목 GDP 성장률(1인당) | - 부패지수 - 초기 GDP('60) - 중등교육 수준('60) - 인구증가 | - 부패지수의 1단위 개선 시 연평균 1인당 GDP 0.8%p 상승시킴 |
| 서인석외 (2009) | '07~'08 | - 국가경쟁력 | - 유형별 부패변수 | - 사법 및 민간부패, NGO 부패 해소 필요 |

주 1. BI(Business International), TI(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2.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는 PRS그룹(Political Risk Service Group, 미국 정치위기관리그룹)이 발표하는 청렴지수를 말함.

2) 실증분석 모델 및 데이터

- (분석 모형) Mauro(1995)의 횡단면 실증분석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인 생산함수를 기반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시도
 - 실증분석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와 시계열 자료(Time-series Data)의 특성을 혼합한 패널분석 방법을 활용²⁾
 - 실제추정은 패널간 또는 전체 패널데이터의 인과모형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방법으로 추정³⁾
- (데이터)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모두 1995~2010년까지의 OECD 패널데이터임
 - 부패지수(CI)는 장기 시계열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관들이 다각적으로 조사한 부패 관련 지수를 종합한 TI(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사용, 기간은 1995~2010년임
 - 종속변수는 1인당 명목 GDP, 설명변수는 부패지수, 자본투입, 노동투입, 대외개방도로 구성

< 분석 변수와 자료 출처 >

| 구분 | 변수명 | 변수 설명 | 자료 출처 |
|------|------------|-------------------------|-------|
| 종속변수 | 1인당 명목 GDP | - 경제성장 | IMF |
| 설명변수 | 부패지수 | - 부패의 정도 | TI |
| | 자본투입 | - 총고정자본형성 규모 | IMF |
| | 노동투입 | - 경제활동인구 | OECD |
| | 대외개방도 | - GDP 對比 국가들의 수출입 총액 비중 | WTO |

- 2) 패널모형은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고려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횡단면분석이 갖는 설명변수 간 내생성문제(Endogenous Problem)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3) GEE 추정 방법은 정규분포로부터 이탈하는 다변량 변수에 일반선형모형(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하는 것으로 GLM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반복측정 시계열 자료를 다룰 수 있는 분석기법(Liang & Zeger, 1986). 상세내용은 별첨 설명 참조.

3) 추정 결과

- (분석 결과) 분석한 결과, 부패와 1인당 명목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패지수 1%(부패지수 0.1) 상승 시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
- (부패 개선에 따르는 성장 효과)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 1인당 명목 GDP 연평균 상승효과는 138.5달러
 - 국내 부패지수와 OECD 부패지수 평균과의 차이는 2.3p임
 - 10이 만점인 부패지수가 1% 상승한다는 것은 0.1p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OECD 평균 부패지수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부패지수가 23%개선되어야 함
 -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 (회귀 계수값 0.029 × 부패지수 상승 비율 0.23 × 2010년 1인당 명목 GDP 20,764 달러) = 138.5달러
 - 명목 GDP 연평균 상승효과는 약 66억 달러로 이는 2010년 명목 GDP의 0.65%에 해당
 - 경제성장률 상승효과 =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138.5달러 × 2010년 국내 총인구 4,799만 명)/(2010년 국내 GDP 총액 1조 149억 달러 × 100) = 0.65%
 - 한국은 각종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한국의 경제성장 상승효과 >

| 구분 | 평균 부패지수(p) | | | | 1인당 명목 GDP 상승효과 | 명목 GDP 상승효과 |
|-------------|------------|-----------------|-----------------|-----|-----------------|-------------|
| | OECD |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 |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하 | 한국 | | |
| '95~'10년 평균 | 7.0 | 8.3 | 5.4 | 4.7 | 138.5 달러 | 0.65% |

4) 부패지수의 계수가 양(+)의 결과를 보인 것은 각종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부패 정도가 개선(부패지수 상승)될수록 1인당 명목 GDP도 개선된다는 의미임.

4. 시사점

- 부패의 폐해에 대한 對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부패 예방은 물론 부패 발생 시 이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당위성 확보 중요
 - 정규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부패의 폐해와 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했을 때의 편익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부패는 부패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한편 타인이나 타 집단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의 안위를 위협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이 OECD 선진국 수준은 물론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선진화 등은 물론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다양한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들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패에 취약한 국내 기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부패통제 수단 강구 추진
 - 감사원 등 각 사정기관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
- NGO등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통해 각종 비리 및 부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 한재진 (02-2072-6225, hzz72@hri.co.kr)
 연구위원 이부형(02-2072-6306, leebuh@hri.co.kr)

참고 문헌

- 김택·정인환(2011), '한국의 부패사 연구(I) : 해방 이후 문민정부까지 정경유착의 유형과 특징', 한국부패학회보, 제16권 제1호, pp.155-174.
- 김태은 외(2008),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횡단 및 패널자료를 통한 증거', 한국행정학보 제42권 1호, pp.293-321.
- 서인석·권기현·이동규(2009), '국가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Peter Evans의 국가유형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4호, pp.21-46.
- 차문중 편(2005),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규제의 영향과 개혁 정책 분석, pp.557-599.
- 차문중(2007),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제173호, pp.1-12.
- 황진영·강동관(2008),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비교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pp.1-39.
- Botchwey et. al.(2000), "Fighting Corruption: Promoting Good Governance," *Commonwealth Secretariat*, pp.5-46.
- Kenneth F. Greene and Andy Baker(2009), "The Latin American Left's Mandate: Free-Market Policies, Economic Performance, and Voting Behavior in 18 Countries," *APSA 2009 Toronto Meeting Paper*.
- Huther, Jeff and Anwar Shah.(2000), "Anti-Corruption Policies and Programs: A Framework for Evalua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501*, The World Bank(December).
- Knack, S. and Keefer, p.(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 pp.207-227.
- Li, H., Xu, L. C. and Zou, H.(2000), "Corrupti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Economics and Politics*, 12, pp.155-182.
- Liang, K.Y., and S.L. Zeger.(1986), "Longitudinal data analysi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Biometrika*. 73: 13-22.
- Mauro P.(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pp.681-712.
- Meier, Kenneth J. and Thomas M. Holbrook.(1992), "I Seen My Opportunities and I Took 'Em: Political Corruption in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olitiecs* 54, no.1, pp.135-15.
- Rock, M. T. and Bonnett, H.(2004), "The Comparative Politics of Corruption: Accounting for the East Asian Paradox in Empirical Studies of Corruption, Growth and Investment," *World Development*, 32, pp.999-1017.
- Sung, H. E. & Chu, D.(2003), "Does Participation in the Global Economy Reduce Political Corruption? An Empirical Inqui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ology*, 3(2): 94-118.
- Tanzi, V. and Davoodi, H.(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WP/97/139, Washington DC, USA.
- Treisman, D.(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Public Economics*, 76(3): 399-457.

< 참고 > 주요 국제기관들의 부패 측정 유형

| 기관명 | 연도 | 조사대상 | 조사항목 | 응답자 | 대상 국가 | 비고 |
|-------------------------------|------|----------------------------------|--|----------|-------|-------|
| 세계경제포럼 (WEF) | 2005 |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기업경영층 (외국인 포함) | 다양한 정부기능과 관련된 뇌물, 추가 비용 제공 정도(수출입, 공공서비스 공공계약, 세금 등) | 10,993 | 117 | 한국 포함 |
| | 2006 | | | 11,000 | 125 | |
| 국제경영개발원 (IMD) | 2005 |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중간이상의 기업 경영층(외국인 포함) | 경제부문의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 | 4,000이상 | 51 | |
| | 2006 | | | | | |
| 정치경제위험 자문공사(PERC) | 2004 | 조사대상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업 경영인 | 자기나라와 근무하는 나라의 부패문제의 심각도 | 1,000 이상 | 12 | |
| | 2006 | | | | 14 | |
| EIU | 2006 | 전문가 | 사익을 위한 공직 남용 정도 | N.A. | 157 | |
| World Markets Research Centre | 2005 | | 부패관료를 접할 가능성 | | 186 | |
| Merchant International Group | 2006 | | 모든 직급 공무원의 부패 | | 155 | |
| Freedom House | | 조사대상국출신 또는 거주 전문가 | 정부의 부패에 대한 공공의식, 미디어 보도 등에 의한 부패 수준 | 29 | 동유럽 | |
| CPIA (World Bank) | 2005 | 세계은행 전문가 | 부패실태, 반부패 노력 및 성과 | 약 2,800 | 76 | 원조대상국 |
| UNECA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 | 각국별 70~120명의 전문가 서베이 | 입법·사법·행정 등의 부패 정도 | | 28 | 아프리카 |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2006년도 CPI 분석 자료; 서인석 외(2009), '국가부패유형과 국가경쟁력지수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제14권 제4호, p.26.

□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nalysis

○ 특징

- 연속 측정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패널 데이터 분석에 사용
 -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한 반복 관찰값이 갖는 문제점 (관찰값이 갖는 자기상관성) 제거
 - 주로 변수유형이 연속적이며 순위를 나타내는 성향을 나타낼 때 이분산성을 해결하는데 적합

○ 부패관련 연구에 대한 GEE 기법의 적용

- 부패지수는 대표적인 연속 측정 시계열로 관찰값의 자기상관성을 가질 수 있음
 - 부패지수는 세계은행, 프리덤하우스, IMD, 세계경제포럼 등 각 기관들이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
- 또, 시계열 및 크로섹션 데이터(패널데이터)의 실증 분석에 있어서 이분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도 필요
- GEE 기법을 활용한 부패관련 기존 연구 문헌은 Greene(2009 : 라틴아메리카의 부패와 경제성과간의 관계), Treisman(1999, 2000 : 부패의 발생원인), Sung&Chu(2003, 글로벌화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 김태은 외 (2008 : 전자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 GEE 추정 방법의 활용

- GEE 추정방법은 Liang&Zeger(1986)가 최초로 패널분석에 적용
- 최근에는 Zom(2000), Pickles(1998), Hardin(2005) 등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실증 연구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0년 | | | | | 2011 | | | | | 2012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E) |
| 미국 | 3.0 | 3.9 | 3.7 | 2.5 | 2.3 | 1.7 | 0.4 | 1.3 | 1.8 | 3.0 | 2.1 |
| 유로 지역 | 1.9 | 0.4 | 1.0 | 0.4 | 0.3 | 1.4 | 0.8 | 0.2 | 0.2 | -0.3 | -0.3 |
| 일본 | 4.4 | 6.1 | 5.2 | 2.3 | -0.6 | -0.9 | -6.8 | -1.5 | 7.0 | -2.3 | 2.0 |
| 중국 | 10.3 | 11.9 | 11.1 | 10.6 | 9.8 | 9.2 | 9.7 | 9.5 | 9.1 | 8.9 | 8.2 |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0년말 | 2011년 | | 2012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5월 18일 | 5월 24일 |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3.30 | 3.16 | 1.88 | 1.72 | 1.78 | 0.06%p |
| | 엔/달러 | 81.19 | 80.66 | 77.66 | 79.39 | 79.50 | 0.11 ¥ |
| | 달러/유로 | 1.3350 | 1.4492 | 1.2955 | 1.2694 | 1.2595 | -0.0099\$ |
| | 다우존스지수(p) | 11,578 | 12,414 | 12,218 | 12,369 | 12,530 | 161p |
| | 닛케이지수(p) | 10,229 | 9,817 | 8,455 | 8,611 | 8,563 | -48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3.38 | 3.76 | 3.34 | 3.36 | 3.35 | -0.01%p |
| | 원/달러(원) | 1,134.8 | 1,067.7 | 1,151.8 | 1,172.8 | 1,180.5 | 7.7원 |
| | 코스피지수(p) | 2,051.0 | 2,100.7 | 1,825.7 | 1,782.5 | 1,814.5 | 32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0년말 | 2011년 | | 2012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5월 18일 | 5월 24일 | | |
| 국제 유가 | WTI | 91.40 | 95.18 | 99.22 | 91.63 | 90.51 | -1.12\$ |
| | Dubai | 88.80 | 106.75 | 104.89 | 104.48 | 102.24 | -2.24\$ |
| CRB선물지수 | 332.80 | 338.05 | 305.30 | 290.43 | 281.92 | -8.51p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 분 | | 2009 | 2010 | 2011 | | | | | 2012E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0.3 | 6.3 | 4.2 | 3.5 | 3.6 | 3.3 | 3.6 | 4.0 | |
| | 민간소비 (%) | 0.0 | 4.4 | 2.9 | 3.0 | 2.1 | 1.1 | 2.3 | 2.5 | |
| | 건설투자 (%) | 3.4 | -3.7 | -11.0 | -4.2 | -4.0 | -2.1 | -5.0 | 2.3 | |
| | 설비투자 (%) | -9.8 | 25.7 | 10.3 | 7.7 | 1.2 | -3.3 | 3.7 | 5.5 | |
| 대외거래 | 통관기준 | 경상수지 (억 \$) | 328 | 294 | 26 | 55 | 69 | 127 | 277 | 170 |
| | | 무역수지 (억\$) | 404 | 412 | 71 | 84 | 63 | 104 | 321 | 290 |
| | | 수출 (억 \$) 증감률 (%) | 3,635 (-13.9) | 4,664 (28.3) | 1,310 (29.6) | 1,427 (18.7) | 1,412 (21.4) | 1,416 (10.0) | 5,565 (19.3) | 6,344 (14.0) |
| | | 수입 (억 \$) 증감률 (%) | 3,231 (-25.8) | 4,252 (31.6) | 1,239 (26.2) | 1,343 (27.1) | 1,349 (27.6) | 1,313 (13.4) | 5,244 (23.3) | 6,054 (15.5)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2.8 | 3.0 | 3.8 | 4.0 | 4.3 | 4.0 | 4.0 | 3.5 | |
| 실업률 (%) | | 3.6 | 3.7 | 4.2 | 3.4 | 3.1 | 2.9 | 3.4 | 3.6 | |
|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 | 4.0 | 3.7 | 3.8 | 3.7 | 3.6 | 3.4 | 3.6 | 4.0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 1,276 | 1,156 | 1,120 | 1,083 | 1,085 | 1,144 | 1,108 | 1,050 | |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